



‘水路’夫人 설화 창작의 시공간

– 「헌화가」를 중심으로

Space-time of Mrs.Suro tale creation – focused on the 「Heonhwaga」 –

저자
(Authors) 이주희
Lee, Ju-hui

출처
(Source) [어문론집 55](#), 2013.9, 195–218 (24 pages)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55](#), 2013.9, 195–218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중앙어문학회](#)
The Society Of Chung-Ang Language &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6448>

APA Style 이주희 (2013). ‘水路’夫人 설화 창작의 시공간. 어문론집, 55, 195–21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3 13: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水路’夫人 설화 창작의 시공간

- 「헌화가」를 중심으로 -

이 주 희*

〈차례〉

1. 머리말
2. 「헌화가」·「해가」의 창작 시기
3. 수로부인의 ‘水路’와 「헌화가」 창작의 공간
4. ‘水路’의 의미와 「헌화가」
5. 맺음말

1. 머리말

통일신라 성덕왕대에 신라 왕경을 출발한 水路夫人은 남편의 부임지인 장릉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헌화를 받기도 했고, 해룡에게 납치되기도 했다. 일연의 표현대로 그녀의 ‘姿容絶代’가 그 이유였다.¹⁾

그동안 수로부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통일신라기 전체를 고려하여 수로부인 설화를 연구했다. 그래서 그 시간 폭 만큼 문학적 해석의 여지는 열려있었고, 상징·은유적 해석을 담은 다양한 연구논문들의 생산력도 여기에 비례했다.

그리하여 수로부인을 巫女로 보기도 하였으며,²⁾ 기우제를 주관하는 司祭로 이해하기도 했다.³⁾ 수로부인의 이름이 ‘水路’ 즉 물꼬를 튼다고 해석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

1) 수로부인이야기는 ① 「헌화가」 배경설화 ② 「해가」 배경설화 ③ 수로부인이 신 물에게 자주 납치되었다는 일연의 해설 등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허영순(1963), 『古代社會의 巫覡思想과 歌謠의 研究』, 부산대 석사논문.

안영희(1972), 「고대인들에게 반영된 꽃의 의미」 『아세아여성연구』 1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하여, 그의 제의가 구체적으로 기우제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⁴⁾

노옹을 성스럽고 신비스런 도교의 신선으로 보는 설이 있었고,⁵⁾ 노인의 가면을 쓴 무당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⁶⁾ 禪僧으로 보기도 했다.⁷⁾ 노인이 두 노래를 지었고, 그가 관음의 변신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⁸⁾

또한 『獻花歌』에 대한 상징적 은유적 해석이 ‘모호하다’는 반성 하에, 작품 자체의 1차적 의미탐색을 중시하자는 시각에서 『헌화가』를 순수한 ‘구애’의 노래로 보고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기도 했다. 권우노옹과 수로부인을 현실속의 평범한 노인과 여인관계로 보고 젊은 미모의 여인에게 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절벽에서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노래로 보았다.⁹⁾

한편 수로부인 이야기를 정치적 시각으로 본 연구도 있었다. 왕명을 받고 부임하는 귀족 신분의 부인을 납치한 해룡을 반중양적 지방 세력의 한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고,¹⁰⁾ 동해안에 출몰한 倭海賊으로 추정하기도 했다.¹¹⁾

이러한 추정과 해석은 향후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海歌』에서 보이는 수로부인 : 해룡 : 노인의 관계를 중앙정부 : 중앙정부대항세력 : 민중세력으로 보기도 했다.¹²⁾ 나아가 『헌화가』에서 보이는 수로부인과 노옹의 관계를 탐미적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개된 지배 대 피지배의 질곡을 넘어서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으로 해석하기도 했다.¹³⁾

3) 여기현(1985), 『수로부인 이야기의 제의적 구조』, 한양대 석사논문.

4) 윤경수(1993), 『향가 여요의 현장성 연구』, 집문당.

5) 김선기(1967), 「꽃밭된 노래(獻花歌)」, 『現代文學』, 153, p.307.

6) 조동일(1980), 『文學研究의 方法』, 지식산업사, p.125.

7) 김종우(1976), 『鄉歌文學研究』, 삼문사, pp.30~31.

김광순(1981), 「獻花歌說話에 관한 一考察」, 『韓國詩歌研究-서수생환갑기념』, 형설출판사, p.20.

8) 김운학(1982), 『鄉歌에 나타난 佛敎思想』, 동국대학교 불건간행위원회, p.31, p.81.

9) 윤영옥(1982),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박노준(1982),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노옹을 범상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소를 매러 가던 그곳 지형에 밝은 사람(서재극(1972), 「獻花歌研究」, 『이재수박사 환력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p.258)이라고 하거나, 그저 ‘늙은 노인’이라고도 했다 (김동욱(1977), 『新羅鄉歌의 佛敎文學의 考察』, 『국문학논문집』, 민중서관, p.50).

10) 이우성(1969), 「삼국유사 소재 처용설화의 일고찰」, 『김제원회갑기념논총』, p.95

11) 이용범(1969), 「처용설화의 일고찰」, 『진단학보』 32.

12) 신영명(1998), 「헌화가의 민본주의적 성격」, 『어문논집』 37, pp.68~79.

신문왕대에 완성한 9주 5소경은 원래 의도와 달리 지방의 호족을 통제 하기에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그 아들 성덕왕대 지방의 호족세력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존치했다고 본 견해도 있었다.¹⁴⁾

하지만 수로부인 설화의 기록대로 창작의 시점을 성덕왕대로 한정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덕왕대는 어느 시기보다 왕권은 안정이 되어 있었다.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인 대응 능력이 있었고,¹⁵⁾ 그만큼 지방지배도 확고했다.

반중앙적 지방세력이나 중앙정부 대항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구나 호족의 등장은 9세기 중후반 혼란기에 가서였다.

『삼국사기』권8, 성덕왕 30년 조를 보면 동왕대 일본의 침입과 신라의 대응 기록이 보인다.¹⁶⁾ 하지만 731년 당시 김순정이 사망한지(725년 6월 30일) 6년이 흐른 후였고,¹⁷⁾ 동시기의 『속일본기』 기록에서 일본의 신라 침공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김순정은 성덕왕대 빈번했던 일본과의 외교와 교역을 주도했던 인물이다.¹⁸⁾

그렇다고 통일신라기 전체를 고려한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성덕왕대를 대표하던 수로부인과 남편 김순정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고려 초기까지 구전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헌화가』에서 흥미적인 요소와 『해가』에서 주술적인 모습이 보이듯 그것이 채록되어 기록되기까지 민중의 취향에 맞게 이야기가

13) 진경한, 우웅순 외(1994), 『고전문학 이야기 주머니』, 녹두, p.48.

신영명, 앞의 논문 pp.76~79.

14) 김은수(2006), 『수로부인 설화와 헌화가』 『古詩歌研究』 17, pp.57~67.

15) 『삼국사기』권8, 성덕왕 6년(707) 조 “봄 정월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었으므로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되씩을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2월에 크게 사면하고 백성들에게 오곡종자를 차등 있게 나누어주었다.”

16) 『삼국사기』권8, 성덕왕 30년(731) 4월 조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변경을 습격하므로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깨뜨렸다.”

17) 『續日本紀』卷9, 神龜3年(726) 秋七月 戊子條. “秋七月戊子. 金奏勳等歸國. 賜璽書曰. 勅. 伊浪金順貞. 汝卿安撫彼境. 忠事我朝. 貢調使薩滄. 金奏勳等奏稱. 順貞以去年六月卅日卒. 哀哉. 賢臣守國. 爲朕股肱. 今也則亡. 殲我吉士. 故贈博物黃紼一百疋. 綿百屯. 不遺爾續. 式獎遊魂”

18) 『續日本紀』卷33, 宝龜五年(774) “對曰. 本國上宰金順貞之時. 舟楫相尋. 常脩職貢. 今其孫邕. 繼位執政. 追尋家聲. 係心供奉. ….”

변형 굴절되었던 것도 사실이다.¹⁹⁾

그래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변형과 굴절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설화 생성의 시발점이 된 성덕왕대 강릉 부임지로의 여행 시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水路夫人 이야기의 시점은 신라 성덕왕대이며, 무대는 왕경에서 강릉 사이의 旅路이다.

먼저 시간을 좁혀 보자.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모든 판단 해석은 그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자료는 해석의 여지가 그 만큼 축소된다. 명확한 시기의 설정은 사료 활용성을 더욱 높여준다. 시간의 범위 축소 그자체가 1차적 사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헌화가」와 「해가」의 창작의 공간으로 수로부인이 경주에서 강릉으로 향했던 여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당시 수로부인이 여행했던 동해와 그 해안 지형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현지 자연 환경에 대한 재검토는 설화창작의 공간을 규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화가」와 「해가」의 창작 배경이 왜 모두 바다를 매개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로부인의 이름 ‘水路’에 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헌화가」도 재밌미하고자 한다.

2. 「헌화가」·「해가」의 창작 시기

725년 6월 30일 신라국 왕경에서 어느 남자가 세상을 떴다. 그해 정월에 흰 무지개가 떴고, 3월에 눈이 4월에 우박이 내린 뒤였다.²⁰⁾ 金順貞(純貞公),²¹⁾ 수로부인의 남편인 그의 죽음은 이듬해 일본에도 알려졌다.

19) 김학성(1977),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학연구』 2, 서울대 국문과.

이영태(2000),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 조와 헌화가의 이해」 『국어국문학』 126, p.202.

20) 『삼국사기』 권8, 성덕왕 24년(725) 조.

21) 양자는 동일인물로 보인다. 李惠和(1988), 『龍思想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고

『속일본기』는 그가 일본과의 관계를 주도했던 신라의 집정 재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 725년(성덕왕 24) 세상을 뜨기 전에 김순정은 신라 2관등인 ‘伊滄’이었다.²³⁾ 이는 그가 江陵太守로 부임해간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삼국사기』권40, 직관지 外官 조를 보면 ‘태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관등 규정이 있다.

“郡太守는 115명 이었다. 관등이 舍知(13관등)에서 重阿滄(6관등)인 자로 임명한다.”

위의 기록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신라의 17관 위계(位階)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伊伐滄=角干
- ②* 伊尺滄=伊滄
- ③ 迺滄=蘇判
- ④ 波珍滄=海干
- ⑤ 大阿滄
- ⑥+ 阿滄=重阿滄
- ⑦ 一吉滄
- ⑧ 沙滄
- ⑨* 級伐滄=級滄
- ⑩ 大奈麻=重奈麻
- ⑪ 奈麻=奈末
- ⑫ 大舍(韓舍)

려대 박사논문, p.89.

김은수(2006), 『水路夫人說話와 獻花歌』 『古詩歌研究』 17, p.50 참조.

22) 『續日本紀』卷9, 神龜 3年(726) 秋7月 戊子條.

令木靖民(1967), 『金順貞·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45, 奈良, pp.21~38, 참조.

23) 『삼국사기』卷9, 景德王-元年 丙 “景德王立.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故得嗣位. 妃伊滄順貞之女也.”

『續日本紀』卷9, 神龜三年(726) “貢調使薩滄 金奏勳等奏稱. 順貞自去年六月卅日卒….”

- ⑬+ 舍知(小舍)
- ⑭ 吉士(吉次)
- ⑮ 大鳥(大鳥知)
- ⑯ 小鳥(鳥知)
- ⑰ 造位(先沮知)

태수는 군수이며 이는 12관위에서 6관위까지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중아찬은 6위 아찬과 위계는 같다(阿澮=重阿澮).²⁴⁾

김순정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갈 때는 13위 사지에서 6위 아찬 사이의 관등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가 2위인 이찬까지 진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정원이 115명인 태수 바로 위에 있는 외관직 도독의 관등규정을 보자. 9주로 이루어진 신라의 지방장관 도독은 9명이었다.

“都督은 9명이었다. … 관등이 級澮에서 伊澮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도독은 9위 급찬에서 2위 이찬 사이로 임명되었다. 도독과 태수는 관등규정으로 볼 때 9위 級澮에서 6위 阿澮까지 겹친다.

하지만 정원이 9명인 도독과 115명인 태수 사이의 간격은 크다. 그 만큼

24) 다만 重阿澮이라 명기하고 있는 것은 진골귀족 아래의 신분인 6두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고위 신분인 진골귀족은 아찬으로 태수직에 임명될 수 있으나 6두품은 중아찬이야 한다는 것이다. 6두품 귀족은 5위인 대아찬에 진급할 수 없었다. 때문에 아찬에 오른 6두품 귀족을 한 단계 진급시킬 때 중아찬으로 하는 중위제를 취했다. 신라의 관등제는 골품제(骨品制)와의 연관하에 운영되어 관등의 승진이 골품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었다. 진골(眞骨)만이 승진에 제한이 없었고,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澮)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로 승진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중대 이후 왕권이 강화되고, 6두품 중심의 관료제의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골품제적인 제한은 6두품 이하 관료들의 관등 진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진골 중심의 골품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진골 중심의 관료제를 활성화시키는 타협안으로서 중위제가 성립되어 아찬에 4등급, 대나마에 9등급, 나마에 7등급의 중위를 설치하여 관등상의 상한선에 오른 비진골 관료층에게 특진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한편 제8관등인 사찬(沙澮)에도 최소한 3등급의 중위를 설치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 후에 지방면에 대해 특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25) 이 점에 대해서는 윤영옥이 언급한 바 있다. 윤영옥(1982),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p.165.

태수가 도독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 9주의 각 지역의 주 장관인 도독의 위치는 중앙의 집사부 侍中과 맞먹는다. 金憲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의 시중에 지방의 도독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보인다.²⁶⁾ 통일기 후반에는 대부분 이찬의 관위를 가진 사람이 도독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²⁷⁾

지금까지 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신라의 宰相의 존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김순정은 아주 젊은 시기에 강릉태수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25년 사망 당시 이찬으로 ‘上宰’의 자리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²⁸⁾

신라의 宰相에는 大宰相·上宰와 次宰相·二宰 그리고 第三宰相이라는 존재가 보인다. 이는 재상에 서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²⁹⁾ 上宰 아래에 二宰가 있었고, 그 아래에 三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上宰는 宰相 가운데서도 가장 높다. 上宰는 신라귀족회의 의장인 上大等이나 국왕 직속 집사부의 장관인 侍中 보다 上位에 있는 최고 집정관의 호칭이었다.³⁰⁾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는 김순정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가는 시기를 “성덕왕대(702년-737년)”라고 명기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속일본기』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김순정은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에서 그가 사망한 725년까지 23년 사이에 태수에서 上宰까지 진급한 것이다. 그는 그 사이에 태수에서 도독으로 진급했거나 중앙의 주요 상급직책을 역임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김순정의 최종 관등과 직책을 고려해볼 때 그의 진급은 상당히 빨랐음을 알 수 있으며, 태수는 그의 초임 관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순정은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 직후 봄날에 강릉태수로 발령을 받았을 것이다. 왕경인 경주에서 출발하여 부임지인 강릉으로 향하는 그 때의

26) 『삼국사기』권10, 헌덕왕 8년 조.

27) 『삼국사기』권10, 헌덕왕 3년 조에 보이는 완산주도독 伊滄 雄元の 경우.

28) 『續日本紀』권9, 神龜三年(726) 秋七月 戊子條.

『續日本紀』권33, 宝龜五年(774) 三月 癸卯條.

29) 木村誠, 『新羅의宰相制度』 『人文學報』117, 東京都立大學 人文學部, pp.25~37참조.

구효선(2004), 『6-8세기 신라 재상의 성격』 『韓國史學報』 16, p.50.

30) 令木靖民(1974), 『古代の朝鮮』 學生社, p.185.

여정이 바로 「헌화가」, 「해가」 창작의 ‘시발점’이요 ‘시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로부인의 ‘旅路’와 「헌화가」 창작의 공간

수로부인 일행의 여정은 지금의 경주에서 시작되어 목적지인 강릉에서 끝이 났다. 현재 경주에서 강릉사이의 여정은 버스로 5시간 걸린다고 한다.

『삼국사기』 「三國有名未詳地分」와 『삼국사기』 「이사부전」,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내물왕과 김(박)제상 조 등을 통해 그들의 여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신라시대에 경주에서 시작되어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육로가 존재했던 것 같다. 그 흔적이 『삼국사기』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에 편린으로 나온다. 신라의 사방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北海通 鹽池通 東海通 海南通 北徭通’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東海通’이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 국도가 경주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 까지 뻗어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서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해 해안선 따라 가로지르는 국도이다. 하지만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다.

일찍이 井上秀雄은 신라 5개 通을 다음과 같이 비정했다. 북해통은 신라 왕경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교통로로 파악하여 동해안을 따라서 발해와의 접경으로 통하는 간선도로로 보았다. 여기에 비해 동해통은 신라인들이 甘浦와 蔚山 일대의 바다를 지칭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울산-동래-김해-진주로 통하는 간선도로로 비정하였다.³¹⁾

이노우에의 지적과 같이 신라왕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해안을 따라 가는 간선도로는 北海通이었다. 이는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내물왕과 김(박)제상 조에서 확인된다. 눌지왕(재위 417~458)의 명령을 받고 고구

31) 井上秀雄(1968), 「新羅王畿の構成」 『朝鮮學報』49, 朝鮮學會, 奈良, pp.33~53;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재수록).

려로 향하는 김(박)제상은 北海의 길(“北海之路”)로 향했다. 북해통은 신라에서 일찍이 개통된 도로 가운데 하나였다.

北海 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조선시대 驛道는 청하도(淸河道)와 평릉도(平陵道)이다. 두 역도는 강릉-삼척-울진-영해-영덕-청하-홍해-영일-경주로 이어지고 있었다.³²⁾

신라가 성장한 경주분지는 포항에서 울산에 이르는 형산강 지구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형산강 지구대는 남쪽으로 흐르는 동천과 북쪽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포항에서 울산까지는 자연적인 통로가 만들어졌고 신라는 일찍이 포항을 통해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울진 삼척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³³⁾

504년 2월 지증왕은 삼척지방에 悉直州를 설치하고 伊斯夫를 軍主로 삼았다. 왕이 나라 안의 州郡縣을 정하면서 실직주를 설치했다는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³⁴⁾ 이는 504년 이전에 신라가 삼척 강릉지역을 차지하였고, 그때에 와서 州라는 軍政통치지구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524년에 세워진 「울진봉평신라비」에서 삼척의 실직군주 탁부(梁部)의 이부지 나마(“悉支軍主 喙部 尔夫智 奈麻”)가 보인다. 당대 신라의 삼척 강릉지역 지배를 금석문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尔夫智는 이사부의 후임자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도 왕경에서 부임지로 갔을 것이고 200년 후

32) 『경국대전』(권1, 吏典 外官職)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렇다. 청하도의 관할범위는 청하-영덕(盈德)-영해(寧海), 그리고 청하-경주(慶州) 방면과 청하-홍해(興海)-영일(迎日)-장기(長鬢) 등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영해의 병곡(柄谷), 영일의 대송(大松), 홍해의 망창(望昌), 영덕의 주등(酒登)·남역(南驛), 장기의 봉산(峯山 또는 蓬山), 경주의 육역(陸驛) 등 7개 역이다. 평릉도(뒤에 중심역이 교가역(交柯驛 : 삼척)으로 이속하였다)의 관할범위는 강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삼척-울진-평해(平海), 북쪽으로 양양(襄陽)에 이어지는 역로(驛路)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강릉의 동덕(冬德)·대창(大昌)·구산(丘山)·목계(木界)·안인(安仁)·낙풍(樂豐), 삼척의 신흥(新興)·사직(史直)·교가(交可)·용화(龍化)·옥원(沃原), 울진의 흥부(興富)·수산(守山)·덕신(德神, 또는 德新), 평해의 달호(達孝) 등 15개 역이다. (정요근(2008), 『高麗 朝鮮 初 驛路 網 과 驛制 研究』 서울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57쪽 참조).

33) 서영일(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pp.24~25.

34) 『삼국사기』권4, 지증왕 6년 조.

순정공도 수로부인과 함께 그 길을 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국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신라시대에 동해안을 따라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솔들을 데리고 이동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동해안은 함흥에서 강릉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완만한 평야지대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가 명주군 강동면에서 태백산맥의 줄기가 바다와 마주친다. 정동진의 지형을 보더라도 배후의 산과 바다는 거의 붙어있으며, 삼척에서 울진까지 해안은 거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근덕이나 임원 그리고 원덕에서 완만해진 해안선이 보이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다와 만나는 태백산맥의 곁가지가 줄기가 고저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산발적인 현상일 뿐이다. 대부분 마을은 앞은 바다요 산으로 둘러싸인 灣의 좁은 귀퉁이에 붙어있을 뿐이다. 울진에서 남으로 영덕까지 산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해도 그 정도는 만만치 않다.

『삼국사기』 『이사부전』을 보자. 동해안의 이동 수단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지증왕 13년 임진(512)에 이사부는 阿瑟羅州(강릉)의 軍主가 되어 于山國을 병합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미련하고 사나워서 힘으로 항복받기는 어려우나 전략으로 항복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으로 가서 거깃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놓아서 밧아 죽이겠다.”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즉시 항복하였다.

이사부는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하였다. 강릉까지 북상했던 신라가 6세기 초두에 東海로 본격 진출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증왕대 牛耕法 실시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선박이용제도정비 東市 개설을 통한 유통경제 활성화 등 각종제도 정비로 상징되는 사회 발전 때문이었다.

이사부가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사자로서 그들을 위협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사부가 이끄는 수군의 무력시위 혹은 위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산국 사람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할 정도의 무력 시위였다면 이사부의 수군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형전함과 잘 훈련 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⁵⁾

그렇다면 신라는 해양으로 진출하여 정복활동을 벌일 정도의 수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의 사회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동해안의 험한 지형이 이동수단으로써 항해기술발전을 촉진시켰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도 있다. 연안 항해기술 축적이 원양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은 세계사의 상식이다.

수로부인과 순정공의 여정이 시작되기 약 300년 전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와 왜에서 신라로 두 王弟를 탈출시킨 박(김)제상의 이야기가 있다.

고구려에서 寶海를 탈출시킨 제상은 왜국에 볼모로 가있는 美海를 구출하기 위해 곧장 바로 栗浦(울산)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배를 타고 왜국으로 향했다. 배 위에 오른 남편을 제상의 아내는 간곡하게 불렀지만, 제상은 손을 흔들며 보일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고구려를 탈출한 寶海의 이야기를 보자.

눌지왕 10년 乙丑(425)…략… 제상은 왕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바로 ‘北海之路’로 향하여 變服하고 고구려에 들어가 寶海(눌지왕의 동생)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도망할 일자를 약속해 놓았다. 제상은 먼저 5월 15일에 高城水口에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정해지자 보혜는 병을 핑계로 며칠 동안 조회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중에 도망하여 고성 바닷가에 이르렀다. 고구려왕은 이를 알고 수십 명의 병사를 시켜 쫓게 하니 고성에 이르러 따라잡게 되었다. 그러나 보혜는 고구려에 있을 때 늘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쫓아온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화살의 축을 뽑고 쏘아서 몸이 상하지 않고 돌아 올 수 있었다.³⁶⁾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상이 눌지왕의 동생 보혜를 탈출 시킨 경로는 고성에서 포항에 이르는 海路인 것으로 보인다. 육로로 탈출했다가는

35) 권덕영(1999), 『三國時代 新羅의 海洋進出과 國家發展』 『STRATEGY21』 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210.

36)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내물왕 김제상 조.

지형 상 도주로가 뻗은 동해안서 고구려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다. 배로의 탈출이 안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배를 이용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배는 연안 이동에 용이한 도구이기도 했다. 배는 매우 빨랐다. 이동 비용과 노력이 육로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 물론 이동하다가 항구에 들러 쉬어야 했다. 고대에는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피항을 해야 했고, 항구에서 식량과 물을 공급 받아야 했다.³⁷⁾

이제 『三國遺事』 권2 紀異 「水路夫人」條에서 「헌화가」창작의 공간을 살펴보자.

“성덕왕대 순정공(純貞公)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돌 봉우리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두르고 있어 그 높이가 천 길이나 되는데, 그 위에 철쭉꽃이 만발하여 있었다. 공의 부인 ‘水路’가 그것을 보고 좌우 사람에게 말했다. “꽃을 꺾어 내게 줄 사람이 없는가.” 그러자 從者들은 “거기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때 암소를 끌고 걸은 지나가던 늙은이가 있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歌詞까지 지어 바쳤다. 그러나 그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뒤 편안하게 이틀을 가다가 또 臨海亭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더니 부인을 끌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³⁸⁾

위의 설화에서 수로부인과 그 일행이 강릉으로 가는 여정 중에 두 차례 점심을 먹었으며, 그 공간이 海汀과 臨海亭으로서 바로 바닷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 일부를 원문으로 다시 보자.

“行次海汀畫簾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

37) 윤명철(1995), 「高句麗 發展期 海洋活動能力에 대한 검토」, 『申廷澈教授停年 退任紀念史學論叢』, 참조.

38)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洲)行次海汀畫簾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 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皆辭不能 傍有老翁牽牛而過者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便行二日程 又有臨海亭 畫簾次 海龍忽攬夫人入海...” 『三國遺事』 卷2 「水路夫人」條.

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皆辭不能 …”

주목해야 할 것은 晝饈을 한 바닷가의 장소가 ‘石嶂이 如屏臨海’한 곳이며 절벽 위(上)에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있었고(上有躑躅花盛開), 수로부인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점이다(公之夫人水路見之).

여기서 철쭉과 수로부인의 위치가 드러난다. 철쭉은 천장 높이(高千丈) 절벽 위에 있었고(上有), 수로부인은 그 천 길 ‘아래’에서 꽃을 보았다는 점이다. 그 곳은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非人跡所到)”.

수로부인 일행이 육로로 가다가 절벽 아래 해안가로 내려가 절벽 위의 철쭉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설화를 통해서 수로부인 일행이 배를 이용하여 이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水路’부인의 이름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石嶂이 如屏臨海’한 곳이 「헌화가」의 창작공간이다. 이는 ‘水路’를 통해 동해안의 가장 험한 울진-삼척 사이의 어느 어촌 灣에 입항하는 배에서 목격되는 풍경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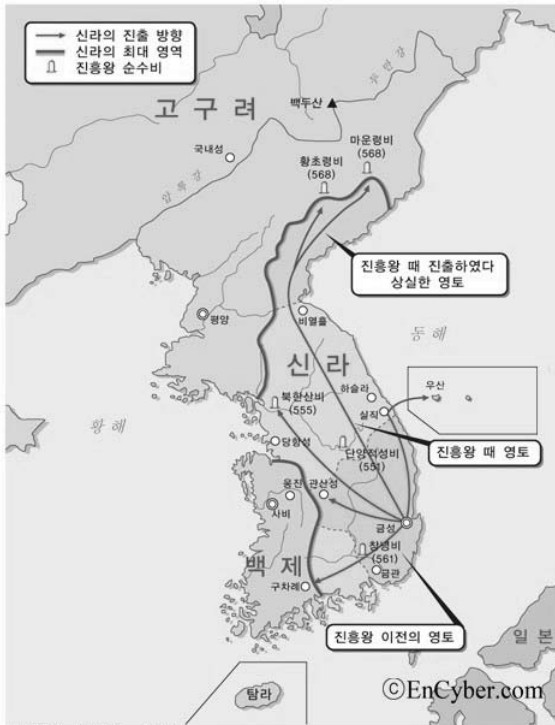
진흥왕대 신라의 동해안 지역 점령은 水路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1913년 함경도 동해안 함흥 방면에서 고구려의 舊都 국내성으로 향하는 해발 1225m 고개에 568년 신라 진흥왕이 세운 「황초령비」를 본 이마니시류(今西龍)는 신라가 동해바다를 교통로로 이용하여 북쪽 영토를 확장했다고 보았다. 그의 글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진흥왕 순수비가 북한산(서울-필자)에 세워지고 또 비자벌에 세워진 것과 비교할 때, 본비(황초령)는 비리성(강원 최북부 안변)에서 너무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황초령비가) 신라의 영토라고는 거의 추측할 수 없는 황초령 위에 남아 있는 것은 기이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는 삼국 위나라시대에 한반도 서쪽에서 압록강 하구조차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동쪽에서는 강원(도) 및 경상(도) 연안의 예맥을 종속시킨 사실이 있다. 일본에서도 태평양 방면에서는 진출이 늦어 히타치(常陸 현 이바라키현)와 시모스케(下野 현토치기현)에서 정체된 것에 비해 일본해(동해) 방면에서는 훨씬 북진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교통로

로서 바다가 가졌던 중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비열홀 측 안변에 軍主를 파견한 시기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흥왕 17년(556)이었고, 이것은 당시 신라가 발흥하던 형세로 보아 참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신라는 해상 통로를 이용해서 종래 고구려에 종속되었던 예족을 자신에게 종속시켰던 것이다. 한 걸은 더 나아가 함흥평야에 들어가 옥저를 종속시켰던 것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을 틈다 신라가 해상을 이용해 일시에 급격히 발전하여 황초령에 도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39)



[진흥왕 때의 영토 확장]

39) 今西龍(1921), 『新羅眞興王巡狩觀境碑考 上』, 『考古學雜誌』 12-1; 『新羅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3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2008), 『신라사연구』, 서경, pp.356~357.

고려시대에 동해안지방과 경주를 약탈했던 여진 해적의 활동은 이마니 시의 주장을 일면 보충하여 주는 듯하다. 현종 2년(1011) 부터 숙종 2년(1097)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기록에 나타난 것만 20여회나 된다.⁴⁰⁾ 그 가운데 하나의 사례를 보자.

“신해 2년 1011) 8월에 동여진이 100여 척의 배로 慶州에 침입하였다. 청하(淸河) 흥해(興海) 영일(迎日) 울주(蔚州) 장기(長鬢)에 성을 쌓았다(『高麗史節要』권3, 현종 원문대왕).”

고려가 건국 후 지금의 평안도와 함경도인 북계(北界)의 경영에 나서자 압박을 받은 여진족 중에서도 특히 함흥, 홍원, 북청 등 동북면 해변에 살고 있던 무리들 중 일부가 해적이 되어 동해안 각지에 자주 침범해 들어왔다.⁴¹⁾

1011년 동여진은 100척의 배를 동원하여 동해안과 인접한 도시 경주까지 들어 왔다. 그들은 포항에 상륙하여 경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육로의 멀고 험난함은 항해를 시도했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40) 김재근(1996), 『우리의 배: 구조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41) “(기미 10년 1019) 4월에 鎭溟船兵都部署 張渭男등이 해적의 배 8척을 잡았는데, 供驛令 鄭子良을 일본에 보내어 해적들이 사로잡은 사람 2백 59명을 돌려주었다. … (기미 10년 1019) 7월에 우산국의 民戶로 일찍이 여진의 침략을 피하여 도망해온 자를 모두 돌아가게 하였다 (『高麗史』권4, 현종).”

“(현종 19년 1028) 여름 5월에 여진이 와서 平海郡, 慶北 蔚珍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賊船 4척을 추격해 잡아 그들을 모두 죽였다(『高麗史節要』권3, 현종 원문대왕).”

“(현종 19년 1028) 10월… 丁亥에 東女眞의 賊船 15척이 高城에 침입하고 己丑에 龍津鎭을 침공하여 中郎將 朴興彦 등 70여 명이 사로잡혔다(『高麗史節要』권3, 현종 원문대왕).”

“(현종 20년 1029) 閏 2월 己亥에 女眞의 賊船 30여 척이 동쪽 국경에 침입해 왔으나 船兵都府署判官 趙閔貞이 쳐 쫓아버렸다(『高麗史』권5, 현종).

“(현종 20년 1029) 3월 … 庚辰에 東女眞 賊船 10척이 溟州에 침입하여 왔으나 兵馬判官 金厚가 쳐서 물리쳤다(『高麗史』권5, 현종).

“병자 2년(1036) 2월에 동여진 賊船이 三陟縣 桐津戍에 침입하여 人民을 약탈하므로 장수가 군사를 수풀 속에 숨겨두었다가 도적들이 돌아가는 것을 엿보아, 북 치고 소리 지르며, 추격하여 40여급을 사로잡기도 하고 베어 죽이기도 하였다(『高麗史節要』권4, 정종 용해대왕).”

4. ‘水路’의 의미와 「헌화가」

23편으로 이루어진 『삼국유사』 기이 제2권의 각 편들 대부분은 신이하고 비범한 인물들의 행적담이다. 그리고 각 편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이며 단연 남성이다. 그런 가운데에 여성인 수로부인이 당당하게 실려 있다. 그것은 그녀 남편의 사회적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로의 남편 김순정은 바다 건너 일본과 외교와 교역을 주도했던 신라의 집정 上宰였다. 외교권은 왕이 가진 여러 가지 정치권력 가운데 하나이다. 외교권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고유 권능으로 대외적인 교통 확보가 커다란 역할이었다.

외교권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환·유통을 포함한 경제적 교통 장악과 관련이 있다.⁴²⁾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의 경우 집정대신이 전담했으며, 김순정에서 그 孫 金邕으로 이어지는 김순정 가문이 그것을 관장했던 것 같다.⁴³⁾ 『續日本紀』卷33, 宝龜五年(774) 3月 癸卯 조를 보자.

“新羅國使 禮府卿 沙滄 金三玄 이하 235人。(九州) 大宰府에 도착하였다. … 三玄이 말하였다. 本國王의 教를 받들어 옛날의 우호를 닦고 사신 방문을 청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信物과 在唐大使 藤原河清의 書를 가지고 來朝했습니다. … 本國 上宰 金順貞때에 **배(舟)와 노(楫)가 서로 이어졌으며(相尋)** 항상 職貢을 닦았다(常脩). 지금(今) 그의 손자(其孫) 김웅(金邕)이 계승(繼位)하여 (신라에서) 집정(執政)하고 있다. 그는 가문의 명성을 쫓아서 (일본조정을) 供奉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옛날의 우호를 다시 닦고 사신의 방문을 요청하려는 것이다.”

위의 기록은 774년(혜공왕 10년) 3월에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신 김삼현과 일본 관리의 대화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上宰 김순정과 그 손

42) 左藤信(2003),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p.88.

43) 令木靖民(1967), 「金順貞·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45, 奈良, pp.21~38, 참조.

자 金龜이 대일외교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聖德大王神鐘銘』을 보면 당시 김웅은 당시 신라에서 上相으로 兵部令·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 등을 겸직하고 있었던 신라 최고의 실력자로 집정대신이었다.

위의 기록에서 신라 上宰 김순정의 시절에는 신라와 일본 사이의 사신 왕래가 잦았다고 하고 있다. 김순정이 생존했던 성덕왕대 725년 이전까지 총 14회 일본과의 사절 왕래가 있었다. 726년 일본에서 귀국길에 올랐던 신라 사신 金奏勳 등은 일본왕이 신라의 집정대신 김순정 등에게 내리는 칙을 받기도 했다.

그때 김주훈은 김순정이 전년 6월 30일에 죽었다는 사실을 일본 왕에게 보고했다.⁴⁴⁾ 일왕은 자신의 吉士가 죽었다고 한탄하고 많은 비단제품을 賻儀로 내놓았다. 일왕은 김순정을 자신의 신하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여기서 신라·일본조정에서 김순정의 위치는 물론이고 그가 휘하에 거느렸던 대일본외교사절단과 그들을 배로 실어 날랐던 水夫집단의 존재가 드러난다. 위의 기록에서 “本國 上宰 金順貞때에 배(舟)와 노(楫)가 서로 이어졌으며(相尋),…”라고 三玄은 말하고 있다.

한편 수로부인을 위한 『헌화가』와 『해가』를 짓고 부르게 한 노인은 어떠한 역할자인가? 수로부인 일행은 ‘石嶂이 如屏臨海’했던 곳에서 식사를 했다. 천 장 높이의 바위 암벽 위에 자주색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水路’부인이 시종들에게 “꽃을 꺾어다 바칠 사람이 그 누구이고?” 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곳은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옵니다(非人跡所到)”라고하며 위험하여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 하고는 어느 누구도 꽃을 따러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으로 어떤 정채불명의 牽牛老人이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천장 높이의 바위에 올라가 철쭉을 꺾어 와서는 다음과 같은 가사까지 지어 바친다.

紫布岩乎邊希	자주빛 바위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잡고있는 암소농게 하시고

44) 『續日本紀』卷9, 神龜三年(726) 秋七月 戊子條.

吾吟不喻慚吟伊賜等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花吟折叱可獻乎理音如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⁴⁵⁾

분명 꽃이 있었던 곳은 경사가 가파르며 높은 암벽이어서,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생면부지의 노인은 너무도 쉽게 꽃을 꺾어다가 바쳤다. 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헌화를 했다고 생각된다. 그녀의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 이틀 후에 지어진 『해가』에도 또한 노인이 등장한다. 순정공 일행이 바닷가 정자에서 점심을 먹는데 돌연 바다 용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역시 노인의 지혜로써 주변 백성들을 합심하게 하여 수로부인을 구해낼 수 있었다. 『헌화가』와 『해가』에 등장하는 노인은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노옹은 수로부인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변인이다.

수로부인의 자용절대가 노인을 바위 암벽으로 이끌었으며 『헌화가』를 지어 바친 원인이라고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름에 자용절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水路’란 후에 바다 건너 일본과 교역을 주도한 신라의 집정자 순정공을 상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不知不識間에 그 부인의 이름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수로’의 부인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남편이다. 물론 그녀의 자용절대에도 그녀 남편의 고귀한 신분과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길’과 관계가 깊은 중요한 인물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에게 獻花한 노인의 행동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45)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70 현대어역. 향가인 『헌화가』는 역대 제가의 해독만으로도 가사의 맥락이 충분히 파악되며 서로 대등소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현화가 관련 많은 논문이 있었다. 기존연구는 통일신라기 전체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그 시간의 폭 만큼 논문 생산도 비례했다. 하지만 「현화가」, 「해가」창작의 시공간을 명확히 밝히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먼저 시간을 좁혔다. 『속일본기』기록대로 성덕왕대 김순정이 사망한 725년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했다. 성덕왕대에는 어느 시기보다 왕권이 안정되어 있었고, 자연재해가 빈번해도 국가의 대응능력이 있었다. 그만큼 지방지배도 확고했으며, 중앙정부에 대항세력은 거의 없었다. 호족발호는 9세기 중후반에 가서였다.

『삼국사기』 성덕왕 30년 조를 보면 731년 일본의 침입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김순정이 사망한지 6년이 지난 후였다. 동시기의 『속일본기』에는 신라침공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현화가」창작의 공간에 대해 고찰했다. 수로부인이 강릉으로 향한 旅路였던 동해 해안 지형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함흥에서 강릉까지 완만하지만 명주군 강동면에서 태백산맥의 줄기가 바다와 마주친다. 삼척에서 울진까지 해안이 거의 절벽이다. 앞은 바다요 산으로 둘러싸인 灣의 좁은 귀퉁이에 마을들이 위치해 있다. 「현화가」 창작의 공간 “石嶂如屏臨海”했던 곳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水路’를 통해 동해안의 가장 험한 울진-삼척 사이의 어느 어촌 灣에 입항하는 배에서 보이는 풍경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水路’의 의미와 「현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수로부인」조를 보면 수로 일행은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해안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철쭉은 천장 높이(高千丈) 절벽 위에 있었고(上有) 수로부인은 ‘아래’에서 꽃을 보았다. 육로로 가다가 절벽아래 해안가로 내려가 절벽 위의 철쭉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오히려 「현화가」 창작의 장소에 수로부인 일행이 배를 대고 내려 천장절벽위의 꽃을 보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작용 할 수도 있다. 수로부인은 ‘수로’의 부인이다. 남편인 김순정

은 바다 건너 일본과 외교와 교역을 주도했던 신라의 집정 재상(上宰)이었다. 그녀의 집안에서 배를 운용하는 수부들의 존재도 상정해볼 수 있다.

바다와 태백산맥의 준령이 맞닿은 울진에서 삼척에 이르는 지역에서 수로부인 일행은 여러 번 쉬어 가야 했다. 여기서 노옹 등을 만났고 지역사람들에게 목격되었을 것이다. 신라 최고위 신분의 가족들의 행차가 아닌가.

수로부인에게 『헌화가』를 지어 바치고 『해가』를 부르게 한 노인은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그 노인이 김순정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보필한다는 의미로 보아 獻花한 행동을 순수하게 파악했다.

702년 직후 경 한적한 삼척-울진 사이의 어느 바닷가 항만에 따사로운 봄별이 내리쬐고 있고, 저 천 길 높이 암벽에는 진한 자줏빛으로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躑躅花, 그리고 그 절벽 아래 배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姿容絶代의 미인에게 철쭉 한 아픔을 꺾어다 바치고 있는 어느 견우노인의 순수한 모습이 상상이 된다.

참고문헌

<자료>

『經國大典』,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紀』.

<연구논저>

- 권덕영(1999), 『三國時代 新羅의 海洋進出과 國家發展』 『STRATEGY21』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구효선(2004), 『6-8세기 신라 재상의 성격』 『韓國史學報』 16.
- 김광순(1981), 『獻花歌說話에 관한 一考察』 『韓國詩歌研究-서수생환갑기념』, 형설출판사.
- 김동욱(1977), 『新羅鄉歌의 佛敎文學의 考察』 『국문학논문집』, 민중서관.
- 김선기(1967), 『꽃밭된 노래(獻花歌)』 『現代文學』153.
- 김운학(1982), 『鄉歌에 나타난 佛敎思想』,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 김은수(2006), 『수로부인 설화와 현화가』 『古詩歌研究』17.
- 김종우(1976), 『鄉歌文學研究』, 삼문사.
- 김재근(1996), 『우리의 배: 구조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학성(1977),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학연구』2, 서울대 국문과.
- 박노준(1982),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 서영일(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
- 서재극(1972), 『獻花歌研究』 『이재수박사 환력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 신영명(1998), 『현화가의 민본주의적 성격』 『어문논집』37.
- 안영희(1972), 『고대인들에게 반영된 꽃의 의미』 『아세아여성연구』 1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 여기현(1985), 『수로부인 이야기의 제의적 구조』, 한양대 석사논문.
- 윤경수(1993), 『향가 여요의 현장성 연구』, 집문당.
- 윤명철(1995), 『高句麗 發展期 海洋活動能力에 대한 검토』 『申廷澈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 윤영옥(1982),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 이영태(2000), 『수로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 조와 현화가의 이해』, 『국어국문학』 126.
- 이용범(1969), 『처용설화의 일고찰』 『진단학보』 32.
- 이우성(1969), 『삼국유사 소재 처용설화의 일고찰』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 정요근(2008), 『高麗 朝鮮初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조동일(1980), 『文學研究의 方法』, 지식산업사.
- 진경한(1994), 우웅순 외 『고전문학 이야기 주머니』, 녹두.
- 허영순(1963), 『古代社會의 巫覡思想과 歌謠의 研究』, 부산대 석사논문.
- 木村誠, 『新羅의宰相制度』 『人文學報』117, 東京都立大學.
- 左藤信(2003), 『古代의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 令木靖民(1967), 『金順貞·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 45.
- 井上秀雄(1968), 『新羅王畿의構成』 『朝鮮學報』49, 朝鮮學會.

Abstract

Space-time of Mrs.Suro tale creation
- focused on the 『Heonhwaga』 -

Lee, Ju-hui

Until now, there were many papers related 『Heonhwaga』.

By the way, existing research all of the papers was done by considering the unified TongyiSilla period. However, if clearly stated 『Heonhwaga』 in time and space of the original, it will be clues for the study to overcome the ambiguity. First, we narrowed the width of the time. By the record 『續日本記』, based on the period of Seongdeokwang(702-737). Mrs.Suro of her husband Kimsunjeong, who died 725 years, before the death of her husband in time was limited. Than any time in that period kingship was stable, natural disaster were also frequent but the country's ability to respond was strong. And in the period of seongdeokwang, Kimsunjeong were led Figures by trade for the Japanese and foreign, Records of Japan invaded Silla 『Samguksagi』 is found in the 『Samguksagi』 seongdeokwang'30 (731). Next, 『heonhwaga』 was investigated in a creative space. When Mrs. Suro's for the Travel to Gangneung, east sea coast was no proper road. Therefore, At that time, Going to land would have a hard moving to the mainland. Almost Seaside Is a cliff from SamChuck to Wooljin. On the east coast, From Hamhung to Gangneung is gentle terrain but in the Taebaek Mountains runs into the sea and of the stem in myeongjugun gangdongmyeon. 『Heonhwaga』creative space ‘石嶂如屏臨海’ where two in this regard, and through the ‘水路’ toughest of the East Coast - which between the Wooljin and Samchuk would have docked fishing village. Finally, I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the ‘水路’. The

name of the character can explain the meaning of the whole story because it can act as a clue. 『Mrs. suro,』 look at verse, the party of people with Mrs. suro had lunch in the ocean Cliff stretches like a folding screen. The azaleas were in full bloom over Ceiling Height a cliff. (高千丈上有躑躅花盛開). In other words, Mrs. suro looked down seen the flowers. The way to overland and down to the cliffs to the ocean, seen azaleas was to be awkward. On a road from Gyeong Ju to Gangneung, it was too far and difficult road to take the family travel. The 702 years after, Mrs. suro and her husband, sunjeonggong, it is quite enough headed to Gangneung by "ship".

Key Words : Seongdeokwangdae, Kimsunjeong, 『續日本記』, 石嶂如屏臨海, Wooljin-SamChuck, 高千丈上有躑躅花盛開, 『Heonhwaga』, the means of '水路'.

이 논문은 2013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3년 9월 12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이주희 : bog2duru@naver.com